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11일 화요일 음 6월 22일 (14월)

기상정보

호림



제주도는 대체적으로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간지역은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27℃, 낮 최고 기온은 29-34℃의 분포를 보여준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1.5-3.0m로 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including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Table with sunrise and sunset times for Jeju Island, including moon phase and moonset inform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 for Jeju Island, including daily temperature ranges and weather icons.

Table with air quality and UV index information for Jeju Island, including a warning level and UV index status.

월드뉴스

대폭발 시간문제... 세계 질산암모늄 '위험'

안전하지 않은 상태 지적

레바논에서 일어난 대형 폭발 참사가 머지않아 다른 나라에서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료회사 아래의 질산암모늄 생산공장.

레바논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질산암모늄이 전 세계 각지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다는 지적이다.

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뉴캐슬에 있는 질산암모늄 생산공장에 이 물질이 최대 1만2000t이나 저장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질산암모늄은 실온에서 흰색 고체로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주로 질소 비료로 쓰인다. 대부분 환경에서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만, 고온 및 밀폐 용기에 놓이거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해 폭약 원료로도 활용된다.

내년 중인 예멘 남부 아덴항에도 질산암모늄 4900t이 컨테이너 130개에 나뉘어 3년간 방치됐다는 보도들이 전날 나왔으며, 최근 인도 남부 첸나이 항구에서 최소 5년간 보관돼온 질산암모늄 약 700t이 발견되기도 했다. 바르사스카스 회장은 "지난 100년간 질산암모늄 폭발 사건이 70회나 있었다"며 "모두 화재와 보관 결함이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레바논 당국은 지난 4일 참사는 베이루트 항구 창고에 6년 동안 보관된 질산암모늄 약 2750t이 폭발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루트 참사 후 호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fax numbers.

한라칼럼



송창우

농부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비가 내려도, 날씨가 추워도 꼭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밭에 가야 마음이 편하다. 올해도 장마가 시작되자 산과 들에 자라는 나무와 풀들은 하루가 다르게 잎사귀를 키우며 마치 전쟁에 나서는 군함의 대포처럼 하늘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밭에도 비가 그치면 뽕아냈던 잡초들이 '언제 우리 땀냐?'는 식으로 더 왕성하게 자란다. 때로 없이 내리는 장맛비는 농부를 밭 한구석에 지은 작은 천막으로 몰아낸다. 비 창살 사이로 바라보는 밖의 풍경은 비와 습기를 가득 품은 먹

기후위기와 농부

빛 같은 시계면 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하늘과 맞닿는다. 그 푸름 속에 한 올 한 올 꽃잎은 치켜세워 하늘로 향할수록 연분홍 꽃을 피운 자구나 무(저녁이 되면 퍼졌던 잎사귀가 오므라져서 부부금슬을 상징한다고 함환수(含歡樹)라고도 부른다)를 보는 게 짜증나는 장마철의 낙이라면 낙이다.

올해 제주에 머물면서 몸집을 키울 대로 키워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길었다는 이름까지 얻은 장마는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 몸집과 이름 값으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마전선이 가로로 누워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과 서울 경기도, 강원도, 북한을 훑고 지나며 엄청난 장맛비를 쏟아내더니 이번에는 장마전선을 세로로 세워 마치 씨줄과 날줄로 천을 짜듯 한 반도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이 한반도를 물로 질주하며 쏟아내리고 있다. 장마가 아니라 수마(水魔)다.

계절적 관점에서 보면 여름과 대척점에 있던 지나간 겨울에 눈이 내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겨울다운 날은 얼마나 됐을까. 봄에는 봄 같은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까지는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여기고, 걱정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요새 왜 이리도 걱정이 될까.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이게 근심하고 슬퍼할 일이 아닐 수 있을까. 그리고 겨울과 봄을 거치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어디선가 나타나 사람들의 간격을 때어놓는 것은 물론 집안에 가둬놓더니 이제는 쏟아지는 장맛비로 산을 쓸어내려 고립시키고, 도로를 수로로 변해 자동차를 움푹박싹 못하게 가둬 아까운 생명을 가져가고 있다.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옆 나라 중국과 일본 등

북아 3국은 물론 지구 반대편과 시베리아 할 것 없이 지구 한쪽에서는 물, 다른 한쪽에서는 불로 난다. 지구는 불과 불과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몸부림치며 울부짖고 있다. 현재의 기후위기의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기에 그렇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농사만 짓지 뭐 날씨는 뭐고, 기후 때문에 걱정이냐고 나무라면 할 말이 없지만 이 지구는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야 할 공간이다.

제주엔 장마가 지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7년을 산다는 매미가 6년 11개월을 땅 속에서 생활을 접고 빛이 드는 세상으로 나왔다. 수컷은 천적들의 노림에도 단 1개월 남은 일생을 혼신을 다해 암컷을 부르고 있다. 후손을 위한 매미의 울음은 우리를 되 돌아보라는 절규인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달력 겁이 난다.

열린마당

탄소 줄이고 포인트 올리는 탄소포인트제



문정희

제주시 상하수도과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 생산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거대한 온실로 만들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후 변화를 막으려면 가정에서부터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만 한다.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신청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있으면 된다.

탄소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 에너지 항목별로 정산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게 된다. 쌓인 포인트는 반년마다 현금,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들이 있다. 적정실내 온도 유지하기, 안쓰는 전제품 플러그 뽑기,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물 절약하기·환경 제품 사용하기 등 조금만 신경쓰면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 줄이고 포인트는 올리는 일석삼득의 효과가 있다.

지구 온난화가 환경을 바꾸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저탄소 생활 실천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오미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병원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암검진 또한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암 검진 시기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건강검진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미리 파악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건강할 때 받는 것이고 질병이 진행되면 치료와 재활에 더욱 어려워지고 합병증까지 나타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출생연도가 짝수이면 짝수년, 홀수이면 홀수년생이 검진 대상이 된다. 검진대상자는 ▷위

암·유방암 만 40세이상(2년 간격) ▷자궁경부암 만20세 이상 여성(2년 간격) ▷대장암 만50세이상(1년 간격) ▷간암 만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6개월 간격) ▷폐암 만54세이상 74세이상 미만 폐암발생 고위험군(2년 간격) 검진주기로 실시한다.

제주도 지역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새로 발생한 암환자는 2725명(남자 1487명, 여자 1238명)으로 전년도(2671명)에 비해 54명(2.0%) 증가했고 2017년 모든 암의 조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423.1명(남458.6명, 여387.1명)이었다. 특히 2016-2017년 제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대장암이었다.

이처럼 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기적인 암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50세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3-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기를 권장한다.

암검진은 수검자의 주소와 상관없이 지정된 검진기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검진대상자들이 연말이 돼 혼잡하고 10월 이후에는 수검자가 집중되기 때문에 되도록 연중시기에 검진을 받기를 권한다.

Large advertisement for Cocoly fertilizer,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soil pH, nutrient supply, and crop yiel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Cocoly Korea.

Advertisement for Seogwi City Government services, including 'Hello! Seogwi' and '2020 Women's Employment Support' programs.

Advertisement for Jeju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listing various agricultural support programs and services.